

일 야노 경제 연구소, 2004년 CMOS가 CCD 출하 대수 초월

일본의 야노 경제 연구소는 2001년부터 2005년에 걸친 세계 CCD/CMOS 카메라 시장에 관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에 걸쳐, CCD/CMOS 카메라 메이커나 수입 상사, 소자나 렌즈 등의 관련 메이커 총 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2005년 CCD/CMOS 카메라 출하 대수는 2001년의 4.5배인 2억 5,030만대에 이른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 일본은 벌써 카메라 장착 휴대폰이 많이 보급됐지만, 2002년~2005년에 걸쳐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CMOS에 대해서는 휴대폰이나 PDA, PC등의 기기에 탑재가 전망되므로 2004년에는 CCD의 출하 대수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사에서는 또한 2005년 시점에서의 출하 대수는 CCD가 1억 1,930만대, CMOS가 1억 3,100만대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 <http://www.yano.co.jp>

au, 180도 회전 카메라 부착 무비 휴대폰 출시



일본의 au사는 액정화면이 180도 회전하는 「턴 타입」을 채용한 교세라제의 카메라 부착 무비 휴대폰 「A5305K」를 5월 중순에 발매한다고 밝혔다.

「A5305K」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180도 회전하는 「턴 타입」을 채용한 교세라제의 CDMA 2000 1x 휴대폰으로, 닫은 상태에서 사이드 레버 조작으로 통화나 메일, Web 사이트의 열람, 카메라 조작이 가능하다.

디스플레이는 2.1 인치(132×176 dot) 26만색 표시가 가능한 Crystal Fine 액정으로, 키 측의 배면부에 VGA 사이즈의 33만 화소 고감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카메라는 5 단계 디지털 4배 줌 기능이 있다.

무비 메일서비스 사용은 96×80 dot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텔롭」기능이나 「애프터 레코딩」기능도 제공하고, 128×96 dot의 대화면 무비 사이즈의 메일 수신 및 재생이 가능하다.

또, 동영상의 녹화·재생, ezplus 사용이나 브라우저 표시 등의 고속 처리가 가능한 멀티미디어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H-Mobile」가 탑재되고 있어 동영상의 리얼타임 encode가 가능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재생할 수 있다.

ezplus의 처리 속도를 통상 모드, 고속 모드, 최고 속도 모드의 3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 「터보 모드」도 이용 가능해, 어플리케이션에 맞추어 실행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데이터 재생 방식으로 뮤직 플레이어로서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이 휴대폰의 연속 대수시간은 약 190시간이며, 연속 통화 시간은 약 160분이다.

크기는 약 50×100×22 mm(폭×높이×두께)이며, 무게는 약 108g이다.

본디 칼라는, 포물러 레드, 티타늄 골드, 슈퍼 화이트의 3색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세계 PDA 출하 대수, 1/4분기 전년대비 21% 감소

미국 IDC는 지난 4월 24일 2003년 1/4분기 세계 PDA 출하 대수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 및 개인의 전반적인 수요 침체로 인하여 총 출하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3% 감소한 245만대로 나타났다.

또한 36%의 시장쉐어를 확보하여 1위를 차지한 Palm은 99 달러의 「Zire」등의 신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2위의 Hewlett-Packard(HP)의 2배 가까운 88만 1709대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HP는 주로 299 달러의 「H1910」제품 매출에 따라 2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출하 대수는 HP가 44만 4000대, 소니가 40만대이다. 쉐어는 HP가 18.1%, 소니가 16.3%이다.

최근 PDA 시장에 뛰어든 Dell은 전기 대비 출하 대수를 3배로 늘려 15만 9000대, 6.5%의 쉐어로 4위에 올랐다. 일본의 도시바는 출하 대수 8만 7322대, 쉐어 3.6%로 5위를 차지했다.

관련 : <http://www.idc.com>

〈2003년 1/4 세계 휴대기기 출하대수〉

순위	사업자명	2003년 1/4 실적량	2003년 1/4 마켓쉐어
1	Palm	881,709	36.0%
2	Hewlett-Pakard	444,000	18.1%
3	Sony	400,000	16.3%
4	Dell	159,000	6.5%
5	Toshiba	87,322	3.6%
6	Casio	83,250	3.4%
7	Handspring	70,000	2.9%
8	Sharp	68,960	2.8%
9	RIM	51,000	2.1%
10	GSL	48,500	2.0%
	기타	158,300	6.5%
	계	2,452,041	100%

Windows CE 디바이스, 2010년 Windows PC 추월

미 eTForecasts는 지난 4월 7일 201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Windows CE를 탑재한 디바이스의 출하 대수가 Windows 탑재 PC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사가 밝힌 Windows CE 탑재 디바이스에는 휴대전화, PDA, 가전 기기가 포함되며, Windows CE 디바이스의 시장은 머지않아 Windows PC의 시장을 능가할 만큼 잠재 규모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사는 금년의 Windows CE 탑재 디바이스의 세계 출하 대수는 1400만~1700만대이며, Windows CE 디바이스의 출하 대수가 Windows PC를 따라 잡는 것은 2008년 즈음으로, 이 해에는 Windows CE 디바이스, Windows PC 모두 2억대의 출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Windows CE 디바이스의 세계 출하 대수는 2010년까지 3억~3억 4000만대에 성장한다고 예상되지만, Windows PC의 세계 출하 대수는, 2억 1500만~2억 2500만대까지의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 <http://www.etforecasts.com/index.htm>

IDC, CRM 시장 2007년까지 연 11.3% 성장

미국 IDC는 지난 4월 7일 세계 및 미국의 CRM/고객 케어 서비스 시장의 향후 전망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사는 CRM과 고객 케어 서비스를 맞춘 세계 시장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3%의 성장을 보여 2007년에는 101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DC에서는 고객 케어 서비스는 판매 사이클이 길고 가격 압력이 강하지만, 그 한편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outsourcing)(BP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12~18개월 간에 시장에서 꽤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코스트 삭감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성공

〈세계 및 미국에서의 윈도우 CE 디바이스와 윈도우 피씨 매출액 전망〉

(기준:백만대)

순 위	2002	2003	2004	2006	2008	2010
전세계						
Windows PCs 매출	126	135~138	145~150	170~175	190~200	215~225
Windows CE Device 매출	9	14~17	30~35	105~115	200~220	300~340
USA						
Windows PCs 매출	41	42~44	45~47	49~52	52~55	55~60
Windows CE Device 매출	3	4~5	6~8	19~22	35~40	55~60

의 척도로서의 퍼포먼스를 강조, 고객에 대해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어드바이스 하고 있다.

CRM 서비스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재설계, 최적화에 대응한 적절한 서비스 세트를 제공할 수 있는 벤더가 가장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 <http://www.idc.com/>

In-Stat/MDR, 2003년은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의 해」

리서치 회사인 In-Stat/MDR는 지난 4월 1일 세계 홈 네트워크 시장은 2002년 18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53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과거 3년간 홈 네트워크 시장 확대를 견인한 최대 요인은 「브로드 밴드 서비스 공유」였지만, 향후 이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온라인 게임 등의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라고 밝혔다.

동사는 소니나 Linksys 같은 회사가 이더넷(ethernet)이나 무선 LAN으로 TV나 스테레오를 PC에 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또 가전 메이커 각사는 홈 네트워크를 개입시켜 리치 콘텐츠를 보존/재생하는 미디어 서버 제품을 투입하고 있는 등 2003년은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의 해」가 된다고 보고 있다. 또 향후 이들 제품이 홈 네트워크 시장을 밀어 올리어 세계 홈 네트워크 시장은 2002년의 18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5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예측했다.

동 시장에 차지하는 미디어 네트워킹의 비율은 2002년은 불과 6%였지만 2007년 말까지는 49%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사의 애널리스트는 “최근 시장은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다음 단계에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는 온라인 게임이나 네트워크 디지털 오디오 등의 매력적인 신 어플리케이션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게임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네트워크 대응 게임기가 「최대의 멀티미디어 홈 네트워크 제품」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네트워크 대응의 PVR(퍼스널 비디오 레코더)나 DVD 프레이아가 시장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동사는 북미에서의 홈 네트워크 인스톨 베이스는 2002년의 920만건에서 2007년에는 28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련 : <http://www.instat.com/>

SARS 정보 제공 위장 신형 컴퓨터 바이러스, 「W32/Coronex-A」

일본의 바이러스 대책 기업인 Sophos는 지난 4월 23일 사스(SARS) 정보로 위장한 새로운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W32/Coronex-A」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유저에게 사스 만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듯 속여 첨부 파일을 열게 한다. 첨부 화일을 열면 확산되는 이 바이러스는 전자 메일을 통한 대량 메일 발신형의 워이며, Outlook의 주소장에 기재된 전 주소에 바이러스를 보낸다. 메일의 건명, 본문, 첨부 파일명은 다양하지만,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Virus」 「Hongkong.exe」 등의 명칭으로 유저에게 더블 클릭을 재촉한다.

「SARS에 대한 대중의 염려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워이며, 심리적인 트릭으로 바이러스를 뿌리려고 하는 수법의 새로운 일례다」라고 Sophos의 시니어 테크놀로지 컨설턴트 Graham Cluley씨는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바이러스를 「SARS 바이러스」라고 부르면 생물학상의 바이러스와 혼동해 한층 더 혼란이 퍼질 뿐이므로, 「Coronex」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자료 : <http://www.sophos.com/>

제 8회 국제정보통신 및 이동통신 전시회 · 세미나 개최



협회에서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코엑스 아틀란틱 홀에서 제 8회 국제정보통신 및 이동통신 전시회 · 세미나(EXPO COMM WIRELESS KOREA 2003)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본 협회와 코엑스, E.J.Krause가 공동 주관

으로 열리게 된다. 매년 열리는 구내 정보통신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많은 국내외 정보통신 · 이동통신 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시회와 같이 열리는 세미나는 13, 14일 양일간 3층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첫째 날은 텔레메틱스와 홈 네트워킹에 관하여, 두 번째 날은 Wireless Communication & Internet, Ubiquitous Network에 관한 주제로 열리게 된다.